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종광 소설가

‘농촌’은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사회’다. 각기 생각과 습성이 다른 농민과 ‘농가 인구(현재 농가로 정의된 개인 농가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그리고 비농업인이 가족끼리 동네 사람끼리, 읍·면·읍면끼리 군·시민끼리, 그렇게 엮이고설켜 살아가는 곳이다. 소설은 당대의 사람과 세태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농촌 인구가 마구 줄어들면서 농촌 소설도 마구 줄어들었다. 급기야 농가 인구는 242만 명, 농가 인구 비율은 4.7%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임춘이 어촌에 사는 인구를 더하면 5% 정도 된다. 신기하게도 21세기는 농(어)촌 소설도 5% 정도 생산되고 있다. 5%는 정말 바라보기 나름인 듯하다.

5%의 농촌 소설

‘농촌 소설 쓰는 작가가 씨가 말랐다’거나 ‘농촌 소설이 멸종했다’고 볼 수도 있다. 씨가 마른 것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들이다. 농촌 소설에 관심 없는 분에게 농촌 가 될까 말까 한 판이다. 그 소수 정예 독자야 그 많은 소설 중에 농촌 소설을 찾아 읽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심지어 농촌 소설 좀 쓴다는 작가도 자기만 농촌 소설을 쓰는 줄 알 정도로 안 읽는다. 읽히는 문체와 상관없이, 농촌 소설은 필요한 만큼 생산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테다. 5%의 농촌을 5%의 작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5%의 농촌 소설이 안 읽히고 안 알아주는 것 다음으로 섭섭한 것이 ‘다름’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촌만 나왔다 하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일제 강점기 소설 같다고 여기는 분이 태반이다. 그나마 소설을 읽는 분들도 ‘사투리를 썼으니 이문구 따라 했네’라는 식이다. 2000년대에도 여러 작가가 저마다 고유의 문체와 시각으로 5% 농민의 현재와 사상과 세태와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개별성과 고유함을 알아봐 주기는커녕, 모조리 ‘이문구 소설’ 같다고 매도당하고 있다. 나는 아이돌 그룹 구성원이 다 똑같아

보인다. 나는 농촌 소설에 관심이 많고 사랑하니까 농촌 소설 쓰는 작가들을 알고 그들의 각기 다름을 아는 것일 뿐이다. 농촌 소설에 관심 없는 분에게 농촌 소설은 내가 구별하지 못하는 어떤 아이돌 그룹의 1인일 뿐이다. 대중 독자가, 사투리 나오고 농촌 나오면 이문구 소설 같네, 하는 것도 당연하다. 아님, 감사해야 마땅하다. 고(故) 이문구의 ‘우리 동네’를 읽어 본 분도 정말 귀한 세상이다. 그런데 농촌 소설은 진짜로 왜 안 읽히는 것일까? 상식적으로라면 5%는 읽혀야 되는데 말이다. 5%의 농촌 소설이 진짜 농촌을 그리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농촌 소설은 소설의 속성상 농촌의 이면과 그늘을 묘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중이 듣고 보고 읽고 싶어 하는 농촌 얘기는 예능 같은 것이다. 예능(藝能)이 어째서, 연예인이 일반인 대신 먹여 주고, 애기해 주고, 웃긴 것 해 주고, 사연팔이 해 주고, 감사팔이 해 주고, 사회봉사 해 주고, 군대 생활 해 주고, 세계 여행 해 주고, 뉴스 해 주고, 1박 2일 놀러가고 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뜻하게 된 걸까? 아무튼 예능 프로의 8할이 농어촌 찾아가서 웃다 놀다 먹다 힐링하다 오는 것

이다. 급기야 한국 농촌도 모자라 전 세계의 오지 농촌을 찾아다닌다. ‘시사 교양’이나 ‘다큐’를 표방하지만 결국엔 ‘예능’인 프로도 허다하다. 농어촌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극한’스러운지 보여 주는 ‘리얼 다큐’들도 농어촌이 아니면 제작조차 힘들다. 농촌 소설은 5% 이하인데, 농촌 예능 리얼 다큐는 80% 이상인 묘한 시대다. 농촌 소설은 지금의 농촌에서 농가 인구와 그 외인이 엮이고설켜 치열하게 사는 삶이 기록되어 있다. 영화로 치면 ‘다큐 영화’일 수밖에 없다. 대중이 보고 싶어 하는 농촌은 그런 진짜 농촌이 아니라 딱 방향되고 힐링화되고 예능화된 판타지 농촌이다. 나는 농촌 예능 리얼 다큐에서 그러지는 ‘농촌’은 조작된 농촌이라고 생각한다. 도시 대중이 보고 싶은 것을 담았을 뿐이다. 그래서 농촌을 동물원이나 식물원처럼 그런 예능을 볼 때마다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다. 하지만 진짜 농어촌을 다룬 소설 또한 5%는 꾸준히 생산되어 대중이 읽어 주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진짜 지금의 농촌을 기록해 나갈 것이다. 농어촌의 최후까지도.

社說

지역 숙원 한전공대 조기 설립 지혜 모아야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의 하나인 한전공대 설립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목표대로 2022년 개교 일정을 맞추려면 정해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데 실시협약 체결 등 첫 단추부터 놓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년 후 나주혁신도시에 한전공대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2021년 하반기까지 캠퍼스 조성 및 건축물을 완공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실시협약 체결이다. 전남도와 한전 등이 캠퍼스 부지 제공, 지자체 재정 지원 규모, 인허가 지원 등을 담아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전남도회의의 승인과 한전 내 이사회 출연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달 말 체결 예정이던 실시협약부터 세부 내용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4월로 예정하고 있는 도의회 승인도 자연스럽게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최종 용역 보고서도 다음 달 말로 한 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록 전남 지사와 김

종갑 한전 사장이 최근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들이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역할 배분을 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남도는 한전공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한전공대 설립 지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29일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차제에 한전공대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지원으로 차질 없는 개교에 대한 의지를 보이길 기대한다. 한편도 일부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전공대 설립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이제 막 출발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타임 스케줄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유관기관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고 홍남순 생가 복원 민주정신 새기는 계기로

광주시와 화순군이 ‘시대의 의인’ 고 홍남순 변호사를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화순군은 최근 도곡면 효산리 209번지 일대 홍 변호사의 생가 터에 목조 초가 형태로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가 죽도 화순군에 생가 터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근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화순군은 관련 사업비로 2억6000여 만 원을 확보, 이달 말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복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홍 변호사가 머물며 민주화 운동을 했던 광주시 동구 공동 주택을 매입·복원하기 위해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5억5000여 만 원을 편성했다. ‘민주주의 사랑방’으로 불렸던 공동 주택은 지난 2017년 5·18사적지(제29호)로 지정됐으나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퇴락하고 있었다. 시는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집을 매입한 뒤 원형 복원 계획 수립 등 사업에 착수, 민주 인권 옹호와 저항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 변호사는 1960년 대일 육육외교부 대우정책위원회 전남부위원장, 1969년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전남위원장, 1980년 5·18 수습대책위원, 1985년 5·18광주민주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건립추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큰 어른이다. 광주시와 화순군이 추진하는 홍 변호사 관련 사업은 한국 민주화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의인의 삶을 재조명하는 것이어서 무엇보다 바나갑다. 홍 변호사의 삶을 기리는 것은 광주·전남 민주화 정신의 뿌리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두 자치단체는 홍 변호사 생가 복원과 자택 보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광주·전남 민주주의 정신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동남풍의 주인



정세완 원불교 능성교당 교무

지난겨울 서북풍의 매서움을 피해 겨울잠을 자던 못 생명들이 동남풍의 바람을 따라 긴 동면에서 깨어나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에 꽃샘추위는 우리들의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이 추위가 오레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1차 북미 정상 회담 후의 8개월간의 치열한 물밑 접충에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이 공동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채 다음 만남을 기약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꽃샘추위보다 더 우리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한다. 하지만 동남풍의 봄기운을 따라 멀지 않는 시절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된 조국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중사는 “무

릇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이 다스리는 강령이 되는 바, 서북풍은 상법을 주재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재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의 상생상화(相生相和)하는 도를 널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니라.”고 하셨다. 이제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인류가 한 가족이다. 열린 세상이다. 이 열린 공간에서 마음이 큰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동남풍을 불게 하는 사람과 국가가 가정과 사회의 주인이 되고 세계의 질서를 향도할 것이다. 우리는 동남풍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심화(心和) 기화(氣和) 하여 실천공행하여야 한다. 비화(禾)와 입구(口)가 합쳐진 화(和)의 의미는 ‘쌀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으로, 온화하고 화목한 상태를 나타낸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화(和)이다. 또한 색이나 음이 잘 조화되어(harmonized

) 부딪침이 없는 아름다운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원효 대사는 상대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화(和)라고 했다. 이는 모든 것이 똑같은 모습이 되는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서로 다른 다수가 서로의 차이를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상적인 상태나 형상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화(和)를 통해서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합창은 각 파트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한 분야의 음이 강하면 화음이 깨진다. 그것은 자유로움이고 자연스러움이며 자발적이다. 그래서 다수가 모여져 하나 되고 다수의 다름조차도 어우러져 다름이 드러나지 않는 다름, 다름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과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그 하나됨을 진정한 화(和)라고 보는 것이다. 봄의 동남풍을 불게 하려면 심화 기화가 되어야 한다. 심화(心和)는 마음으로 화하고 기화(氣和)는 육신을 사용하는 육근 작용이 법도에 맞는 행동이다. 이를 위해서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놓아야 한다. 반대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놓아야 한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

고 사랑하면 반대로 그 대상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스타를 좋아하는 팬클럽끼리 서로 다투는 것은 바로 좋아하는 마음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개가 한발음 듣고 접근하는 것은 친근감의 표시이다. 같이 놀자고 하는 것이다. 고양이도 같은 행동을 하면 상대를 거절하고 공격하겠다는 표현이다. 또한 개가 꼬리를 세우고 흔들면 반갑다는 의사의 반면에 고양이는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개와 고양이가 화하려면 서로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심화 기화의 방법은 5-3과 2+2이다. 5-3-2는 ‘오(5)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세(3)번만 더 생각하면 이(2)해가 된다’는 뜻이다. 2+2=4는 ‘이(2)해하고 또 이(2)해하면 사(4)랑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춘삼월, 봄의 꽃향기도 좋지만 동남풍을 일으키는 사람의 향기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화향十里(花香十里) 주향백리(酒香百里) 인향천리(人香千里)라는 말처럼 사람의 향기에 취하고 싶다. 사람에게서 희망을 느끼고 싶은 삼월의 날들이다.

기 고

광주가 궁금할 땐



김길남 블로그 '김선생의 광주사랑' 운영자

100년 전 광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책이 있다. 바로 박선홍 선생님이 쓰신 ‘광주 1백년’(전 3권)이다. 이 책은 개항기 이후 광주의 도시화 과정, 광주 사람들의 삶과 풍속을 마치 사랑방 할아버지처럼 구수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나는 ‘서울 1백년’, ‘부산 1백년’ 같은 책을 그 도시의 토박이가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박선홍 선생님과 ‘광주 1백년’을 가진 광주는 복 받은 도시다. ‘광주 1백년’은 1994년에 금호그룹의 금호문화재단에서 처음 펴냈다. 20년 후에는 ‘광주학 총서’에 포함되어 새롭게 태어났다. 박선홍 선생님께서부터 판권을 기증받은 광주문화재단에서 컬러판

으로 엮어낸 것이다. 이 책을 광주시민 모두가 한 권씩 소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즐거운 상상을 해 본적이 있다. 광주의 역사와 현재를 살피고자 한다면 김정호 선생님의 ‘광주 산책’(전 2권)’을 읽어보아야 한다. 김정호 선생님은 광주에서 평생 동안 기자로 활동했는데, 45권의 저서를 펴낸 광주의 원로다. 광주·전남 지역의 역사 교사라면 국제고등학교 노성태 선생님의 ‘광주의 기억을 걷다’, ‘남도의 기억을 걷다’를 추천한다. 아이들에게 수업하듯 자신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솜씨가 탁월하다. 두 선생님의 책은 지역 신문에 연재했던 내용에 사진, 지도 자료를 넣어서 정리한 것으로 광주를 안내하는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5·18 정신을 폄하하는 쓰레기 수준의 자료들이 범람하는 이때, 5·18을 제대로 알고 싶은 이들에게는 김영택 기자의 ‘5월 18일 광주’를 추천한다. 1980년 5월에 광주 항쟁을 취재하면서 시작된 5·18 연구를 필생의 과제로 삼아 박사 학위를 받아 낸 김영택 기자의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와 연결되는 광주의 5월을

생생하게 정리했다. 5월 광주를 이끌었던 청년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분에게는 ‘윤상환 평전’을 소개하고 싶다. 야만의 시대를 살았던 청년들의 고뇌와 5월 27일 밤 전남 도청을 따내는 대신, 청사(靑社)에 벌이 된 젊은이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 역사와 함께 들불야학에서 활동했던 임박영 선생님은 이 책이 아니라서 더 애뜻하다. 무등산을 야기는 분들에게는 앞서 이 이야기한 박선홍 선생님의 ‘무등산’을 권한다. ‘우리의 영원한 모성이며 마음의 고향인 무등산’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이 책은 무등산 이야기로 540쪽을 채웠다. 무등산의 모든 것을 아우른 책이다. ‘무등산’이라는 같은 제목을 가진 범대순 시인의 시집도 있다. 범대순 시인은 생전에 무등산을 1천 번이나 올랐던 시인으로 유명하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박선홍 선생님과 범대순 시인의 무등산 연기가 궁금할 것이다. 광주 지역의 작가들이 궁금할 때는 이승철 작가가 펴낸 ‘광주의 문화 정신과 그 뿌리를 찾아서’를 읽으면 된다. 광주에서 발행되는 계간 문예지 ‘문학달’에 연재한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은, 한국 근현대 문학의 개척기에 크게 활약했던 작가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진실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문인들의 활동을 치열한 작가 정신으로 정리했다. 광주문화원연합회에서 펴낸 ‘광주광역시 구전 설화’는 수업시간에 광주의 재미있는 전설을 들려주고 싶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광주시청에서 나오는 ‘광주 속삭임’도 좋다. 따끈따끈한 광주의 소식을 배달하는 이 월간 소식지는 인터넷으로도 만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책들은 대부분 광주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도서관에 가기 전에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찾는 책이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책을 찾을 때는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 한다. ‘광주 1백년’을 찾는다면 ‘광주 100년’을 검색하면 없는 책이라고 나온다. 도서관에 가면 광주 관련 자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광주 시민들이 광주에 관한 책을 읽고 광주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사랑스런 도시 광주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러면 이 도시는 더 예쁜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無等鼓

기쁠 때나 감동했을 때, 찬성을 표시하거나 상대를 축하할 때, 또는 환영할 때에 박수를 친다. 상황에 따라 이처럼 조금씩 다르긴 해도 박수는 상대방과의 소통이자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성을 띤 행동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이나 그렇듯 뜻이 좋은 행동이라 해서 반드시 선의로만 사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일찍이 고대부터 정치인이나 예술인들은 박수를 흥보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 예나 지금이나 흥보와 마케팅에는 돈

해 청중들의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변질돼 공연에 성공시키는 조작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1820년 박수 부대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사람은 파리의 사업가 올리비에 소통(Olivier Sauton)이다. 그는 파리에 박수 부대 공급을 위한 사무실을 내기까지 했다. 박수 부대는 리더의 지휘 아래 박수 치는 사람, 감동받은 듯 하는 사람, 양코르 외치는 사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등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작품의 성패 정도에 따라 보수를 받았

박수 통과

는 무리들이 생겨났으니, 이들이 바로 박수 부대이다. 기록상으로 박수 부대는 고대 로마 시대에 보인다. 로마인들은 민속극을 공연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해 박수를 치도록 유도했으며, 근세인 19세기까지도 유럽의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박수 부대가 존재했다. 박수 부대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로마의 네로 황제이다. 네로는 5000명 이상의 박수 부대를 동원, 각종 음악 콩쿠르에 출전해 1등을 차지했다. 애초 박수 부대는 정치 집회나 극장에서 열렬한 호응을 통

우하는 등 폐단을 불러왔기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없어졌다. 며칠 전 주주 총회를 개최한 삼성전자는 의안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박수로 의안 통과를 선언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주총에서 소액 주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박수로 통과시키는 네로 황제이다. 네로는 5000명 이상의 박수 부대를 동원, 각종 음악 콩쿠르에 출전해 1등을 차지했다. 애초 박수 부대는 정치 집회나 극장에서 열렬한 호응을 통

/채희중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선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채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